

휴가철 대유행 우려 현실로...

15일 코로나 확진 6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 10~20대가 대다수... 학원발 집단감염 속출 "감염사실 모른 채 사적 모임 갖다 연쇄감염"

지난 광복절 연휴 제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제주도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휴가철 대유행'이 현실화했다. 특히 방학을 맞은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 모임 이후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족이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이 발생, 확산세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16일 사흘간 하루 46명꼴인 1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4일 39명(2040~2078번), 15일 64명(2079~2142번), 16일 오후 5시까지 36명(2143~2178번) 등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142명으로 집계됐으며 일주일 사이 289명이 감염됐다. 일주일 간 1일 확진자 수는 41.29명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광복절 당일인 지난 15일 하

루 1일 확진자 수가 64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2월 도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최근 급격한 확산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10~20대 또래집단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사적모임을 가지면서 노래방을 비롯해 PC방과 당구장, bowling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후 바이러스가 가족에게도 전파되면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점이 꼽히고 있다.

이달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현황(15일 기준)을 보면 1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으며 20대가 78명, 40대 48명, 50대 46명 등의 순이다.

도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일 20명, 15일 32명 등 52명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엔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다수 포

함돼 있으며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개별사례로 분류된 확진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도 소재 한 학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생겨나면서 확산세에 불을 지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28명이 제주도 소재 한 학원에서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시 학원2'라는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했다.

이 학원에선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4명 4명, 15일 28명, 16일 7명이 확진됐다. 15일 확진된 28명 중 4명은 학원 강사이며 24명은 수강생으로 중학생이다. 이 중 학생들은 도내 6개 학교와 연관돼 있으며, 이들은 13~14일 확진된 학원 수강생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학원2' 관련 확진자는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지인모임8' 집단감염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4명, 16일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도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강다혜기자



15일 제주도 일도1동 강평국 애국지사 생가터에서 표지석 제막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강평국 애국지사 생가터에 표지석 신성학원 총동문회 15일 제막 행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제주 최초의 여성교사 강평국 애국지사(1900~1933)를 기리는 표지석이 생가터에 세워졌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단장 오순덕)은 지난 15일 강평국 지사 추서 2주년을 맞아 제주도 일도1동 강평국 지사의 생가터에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1m의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신성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신성여자학교 1회 졸업생인 강평국 지사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소년결사대를 결성해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졸업 후 제주에서 제주여자장학회를 조직했고, 문맹퇴치만이 독립의 길이라 여겨 야학인 여수원을 설립·운영하기도 했다. 또 명신학교, 대정

공립보통학교, 조천공립보통학교 교사를 역임한 제주 여성 1호 교사기도 하다.

관련 기념사업단은 강평국 지사의 발자취 탐구, 순례여행기 등 그동안의 탐구 흔적을 책으로 엮는 작업 등 지속적으로 강평국 지사의 애국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 문제 없나

제주도 운용병상 총 421개... 16일 기준 92병상만 남아

도 "병상 추가 확보 계획"... '자가치료'도 검토

제주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도내 가용 병상도 모든 확진자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경증환자에 한해 '자가 치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치료용 가용병상은 92병상이 남아 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은 총 421병상으로, 이 가운데 중증 환자나 긴급 환자를 위해 분류한 60병상을 제외하면 361병상을 평상시 가용 병상으로 봐야 한다.

361개 가용데텐 지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긴급하게 확보한 병상 39병상이 포함됐다.

여기서 감염자가 입원한 병상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92병상이 남는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 35병상, 서귀포의료원 24병상, 제주의료원 32병상, 생활치료센터 1병상 등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도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병상확보와 함께 무증상 및 경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시설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 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도내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하면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227명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가용병상 확보 2단계에 설정해 민간·공공시설 두 곳을 확정하고, 총 51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무한정으로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늘리기가 어렵다"며 "정부 방침에서 자가 치료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층이나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자가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기소

지검, 살인·폭력혐의 등 적용

제주에서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우거침입) 등의 혐의로 백씨와 김씨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도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특히 백씨에게는 '절도'와 '상해', '가스방출',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범행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2일 새벽 해당 주택에 침입해 B씨를 폭행,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절취 ▷지난달 2일 오후 해당 주택에 침입한 후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가스를 방출 ▷A군 살해 직후 A군 소유 휴대전화 2대를 망치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일 B씨는 백씨에게 위협을 느낀다며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32회에 걸쳐 순찰을 하기도 했지만, 참극은 막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인공지능 CCTV 도입 등 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 설치 지법, 70대에 벌금 200만원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을 설치한 70대에 벌금이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와 감사 B(7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B씨는 2018년 연말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내 한 주택 부설주차장 중 주차공간 2대 면적에 유리문을 설치, 그 안에 소파와 화분을 적치하는 등 해당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위법사항을 제거한 점, A업체가 B씨의 배우자 회사라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은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줄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면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푼 비스축도 다라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업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배관 누수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사업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심센터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총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